

명사초청간담회

2012.11.27

참석자

구분	이름	소속
유관기관	김규복 회장	생보협회
	문재우 회장	손보협회
보험업계	신용길 사장	교보생명
	서태창 사장	현대해상
	나동민 사장	농협생명
학계	김병주 이사장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오창수 교수	한양대학교
	이봉주 교수	경희대학교
정책 및 감독당국	정지원 국장	금융위원회
	이윤수 과장	금융위원회
	김수봉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언론	위정환 금융부장	매일경제
	이익원 금융부장	한국경제
연구원	김대식 원장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배석)	안철경 부원장	연구조정실
	이기형 실장	금융정책실
	윤성훈 실장	동향분석실
	진 익 실장	경영전략실
	김대환 실장	고령화연구실
	전용식 부실장	동향분석실

-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유기적이고 능동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
 - 첫째,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둘째, 금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신뢰 회복이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공급자 편의 위주의 사업관행, 부실운용 책임의 소비자 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고객신뢰 저하 문제
 - 금융소비자 만족을 지향하여 가치사슬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 이와 함께 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셋째, 겸업화가 진전되고 다른 업권과의 상품차별성이 약해지며,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
 - 보험산업은 노후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합한 장기금융산업인데,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보험산업의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비자중심 경영을 추구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또한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의 향후 비전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제1주제

보험시장 위험요인

- ☐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이며, 이에 대한 전사적 위험관리가 필요
 - 국내경제는 가계부채 문제,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어 수출마저 위축되고 있어 장기 저성장 가능성 높음
-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수요를 위축시켜 비차익에 크게 의존하는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한편, 이차역마진 확대, 운용수익률 하락 등으로 투자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산업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음
- ☐ 실제로 1980~90년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미국과 일본에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파산
 -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
 -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이차역마진으로 1991년 81개 보험회사가 파산함
- ☐ 한편, 저금리 장기화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상품 또는 변액상품 판매 확대(상품포트폴리오 조정)를 통해 기존 계약의 금리 부담을 희석시키고 비차익으로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보임
- ☐ 예상시나리오하에서 자산/부채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 필요

제2주제

보험산업 지속성장 요건

- 소비자 피해(민원)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
 -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고, 특히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
 - 이외에도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판매채널 이슈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도 경영전략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반기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등에 따라 변액연금의 상품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시 방안이 제시됨
 - 그간 공시제도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비표준화되고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공시정책과 보험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 소비자 신뢰는 기업 및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 신뢰는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제고될 수 있음
 -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선거, 친서민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 대처 필요

제3주제

보험시장의 역할변화 및 비전

- 최근 보험산업이 저축성보험 중심의 금융투자형 상품 위주로 성장함에 따라 타 금융업권과의 차별성 약화
 - 보험산업 차별성 약화로 인해 보장서비스에 대한 한정된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타 금융업권과 경합해야 하는 상황
-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여론 주도층, 정책당국, 보험업계가 공감하는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할 필요
 - 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연계, 사적안전망 기능 확대,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
- 한편,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데, 장기금융산업인 보험산업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
 - 공적연금 중심으로 편성된 은퇴 후 소득보장체제가 여러 형태의 연금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될 필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
 - 의료비 규모의 증가로 인한 민영건강보험 수요확대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급증 예상
 - 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 출시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보험감독, 정책, 조사·연구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OECD, IAIS 등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필요